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 SNICKER OF MAGIC

가제 : 마법의 감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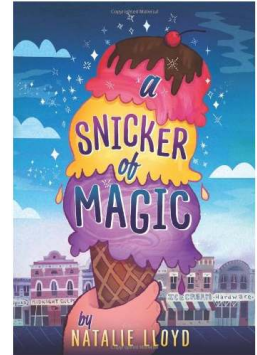
저자 : Natalie Lloyd

출판사: Scholastic Press

발행일: 2014년 2월 2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오래 전 마법이 가득했던 마을로 이사 온 소녀, 신기한 능력을 가진 마을 사람들과 만나다

“이제 거기 마법은 다 사라지고 없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엄마는 마치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운전하며 말했다. 옆에 앉은 펠리시티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도, 상점도, 심지어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큼지막하게 꼭 찬 희뿌연 달만 덩그러니 하늘에 걸려 가로등 역할을 해줄 뿐. “그럼 예전에는 마법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미드나잇 걸치는 원래 비밀의 장소였어. 산에 둘러싸여 다른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 산 주변에는 강이 흘러서 마을을 더 안전하게 지켜줬단다. 강 뒤에는 다시 숲이 우거져서 마을이 간직한 비밀과 노래를 다 숨겨줬어.” 엄마의 목소리는 여름날 불어오는 산들바람 같기도 하고, 자장가 같기도 했다. “그 마을엔 비밀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법을 부릴 줄 알았다는 거야.” “진짜 마법?” “그렇다고들 해. 천둥번개보다 크게 노래하고, 해바라기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도 있었대. 마술로 파이를 굽는 사람, 마술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 좋은 일은 기억하고 나쁜 일은 잊어버리게 하는 마법이나 음악을 잘 하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어.”

열두 살 펠리시티 주니퍼 피클은 여섯살 어린 여동생 프레니 조, 애완견 비스킷, 그리고 엄마와 함께 테네시주의 ‘미드나잇 걸치’라는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다. 한 때는 마법의 마을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마을인 이 곳은 펠리시티의 엄마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했다. 그동안 엄마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아이들을 데리고 뺨 한 대에 의지하여 방황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펠리시티는 이 마을이 어쩌면 영원한 ‘집’이 될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래 전 마법의 마을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고 마을과 가족을 구하려는 아이들의 모험

펠리시티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바로 모든 곳에서 ‘단어’를 보는 희안한 능력이었다. 길

을 지나는 낯선 사람, 강아지의 펄럭이는 귀 위에도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건 마음 속 깊이 감춘 생각이나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었다.

미드나잇 걸치에서 펠리시티는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착한 친구 조나를 만난다.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조나는 불편한 몸을 가졌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이 잘 풀리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희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나 뿐만이 아니었다. 특이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만들어내는 올리버와 폰더, 미용사이면서 그 누구보다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조나의 아버지 주웰 피켓까지, 펠리시티는 자신만의 능력을 활용하며 이 특별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마을에 얽힌 비밀과 이야기를 찾아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늘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는 엄마가 오래 전 마을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조나와 함께 저주를 풀고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저자 소개>

나탈리 로이드(Natalie Lloyd)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위의 작품을 통해 작가로 데뷔했다.

제목 : THE SUMMER OF BROKEN STORIES

가제 : 그 여름, 흩어진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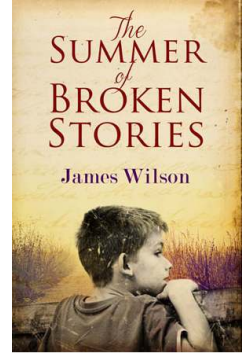
저자 : James Wilson

출판사: Alma Books Ltd

발행일: 2015년 4월 1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1950년 영국, 숲에서 만나 서로의 상상력을 나누던 은둔자와 열살 소년, 두 사람의 우정과 배신

어느 여름,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즈음 정도로 빛은 듯 창백한 얼굴의 남자아이가 숲 속을 헤매고 있다. 흰색 셔츠에 카키색 반바지 차림으로, 얼굴을 잔뜩 찡그린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초조하게 외쳤다. “바니! 바니!” 그리곤 기척이 있는지 잠깐 귀를 기울여보지만, 새 지저귀는 소리와 저 멀리서 움직이는 트랙터 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다. “바니! 이리와!!” 다시 외쳐보지만 소용이 없다. 아이는 손에 쥔 막대기를 더 힘주어 잡고는 어딘지도 모르고 나무 사이를 돌아다닌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무 태우는 냄새가 지독하게 풍겨온다. 대체 이 여름에 숲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이 누굴까? 혹시 부랑자일까? 몽고메리 아저씨가 조심하라고 했던 집시들인가? 집시들이 바니를 훔쳐갔나? 알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새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갓 꺾인 나뭇가지에서 나는 푸르스름하고 강렬한 향.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로 순간 내리치는 햇살이 어두운 숲 속을 환히 비추자, 베어낸 나무 그루터기들과 주변에 흩어진 나뭇가지, 잎사귀들이 열기설기 길게 쌓여 있었다. 뭔가 잘 정돈된 분위기를 보니 분명 부랑자는 아니었다. 집시들이라면 공격해올지도 모르고 돈을 털어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혹시 사냥터지거나 농장에서 온 사람이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알려줄지도 몰랐다. 아이는 조심스레 휘파람을 불면서, 바니가 어서 모습을 나타내기만을 기다렸다. 바니는 기척도 없고, 갑자기 파란색이 눈에 들어왔다. 숲 한복판에 놓인 낡은 객차였다.

아이의 머릿속이 바빠 움직이며 어딘가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랐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운행되던 그레이트 노던 장거리 객차. 분명 그 객차였다. 빛이 바랜 파란색 객차의 문 앞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고 페인트통과 붓, 찻잔 등 누군가가 새로 페인트칠을 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객차 안에서는 외부로 연결된 스토브 관에서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는 그 앞으로 다가, 크게 소리질렀다. “바니! 어딴어?” 그러자 객차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나왔다.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보이고 노르스름한 회색 턱수염을 잔뜩 기른 사람. “너 혹시 개 잃어버렸니?” 그가 담담하게 묻는다. “네.” “내가 한 마리 데리고 있어. 와서 네 개인지 보렴.” 아이는 잠깐 망설였지만 남자를 따라갔다.

버려진 객차에 홀로 살아가던 외로운 남자,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며 살던 소년의 만남

1950년 잉글랜드 어느 마을. 마크는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낯은 객차에 살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난다. 오브리 힐야드라는 이름의 이 낯선 남자는 전형적인 은둔자의 모습이지만, 마크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 같이 그를 멀리했다.

마크는 오브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동안 혼자 상상 속으로 지어낸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오브리는 집필 중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에 대해 마크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결국 오브리를 내쫓기로 결정하면서, 마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곤란한 갈림길에 놓인다. 오브리를 도와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

<저자 소개>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은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The Dark Clue》, 《The Bastard Boy》, 《The Woman in the Picture and Consolation》 등 총 세 편의 소설과 비소설 《The Earth Shall Weep: A History of Native America》를 발표했다.